

2014 오페라 창작산실 음악공모(재공모) 심사평

2014 오페라 창작산실 음악공모는 2013년도 대본공모 선정작 '소서노'와 '미호'에 대한 음악을 작곡하는 것으로, 선정된 작품은 상금과 함께 차년도 실연 심사의 기회를 얻게 되고 실연심사에서 최종 선정될 경우, 우수 작품제작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10월에 진행된 음악공모를 통하여 '미호'에 대한 작품이 선정이 되었고 '소서노'의 경우 적격한 작품이 없어 재공모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심의에는 총 7건이 신청되었고, ①작곡의 완성도 및 예술성(70%), ②향후 발전 가능성(30%)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소서노'에 대한 음악작곡 총 1건을 선정하였다.

심의는 제출된 악보와 음원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지난 1차 공모에 비해 더 많은 지원자들이 다양한 음악으로 작품을 준비하였다. 특히 지난 음악공모에 지원했던 작곡가들이 재공모 지원 시 더욱 발전되고 정리된 음악어법을 구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심의에서는 대본의 스토리 전개와 장면들에 대한 극적인 이해도, 언어와 음악과의 밀접한 연관성, 오페라적인 성악 선율의 구사, 음악어법의 시대성과 독창성, 오케스트레이션의 다양한 구사와 표현력 등에 집중하였는데, 선정작의 경우 심도 있는 대본의 이해와 극적 해석력, 가사에 담긴 의미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성악 선율, 그리고 독자적인 음악어법을 통한 다양한 오케스트레이션의 구사 능력을 보여주어 앞으로 대본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작품들 중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작품들이 있었으나, 대본의 내용과 특징이 음악으로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거나, 음악어법 면에서 독창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각각의 다양한 음악적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보다 완성도 있는 오페라 작품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 오페라 창작산실 음악공모(재공모) 심의위원 일동